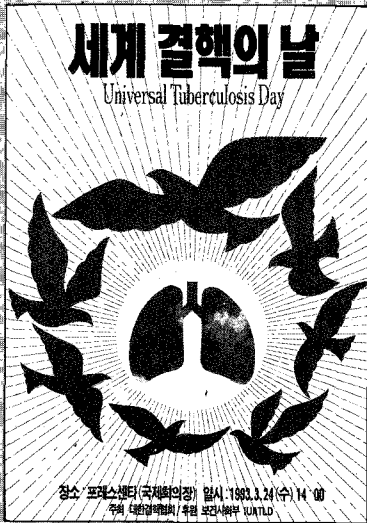


특 집

세계 결핵의 날 기념강연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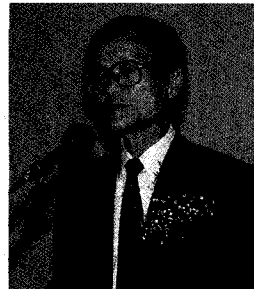
- 민속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김열규
- 결핵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홍영표
- 결핵과 불기분의 에이즈—
최강원

세계 결핵의 날

민속을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관

— 한국인의 전통 민간의술 —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흐 박사가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하여 학계에 발표했던 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항결핵연맹이 그 100주년 되는 1982년에 이 날을 “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 공포하고, 본 연맹에 가입한 전세계 항결핵협회들은 이날에 범국민적인 결핵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강연회 내용을 게재해 본다. (편집자 주)



김열규

인제대 국문학과 교수

1. 민속의술(民俗醫術)의 의의(意義)

민속의술을 다루는 것은 민속의술이 한 민족의 전통문화의 마지막 보루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업화에 따라서 밀려드는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 앞에서 허물어져 가는 전통문화의 최후의 파수꾼 노릇을 민속의술이 해낸다는 점에서 이 오래된 민간의 의술은 전통문화론에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외래문화 앞에서 병들어 가거나 시진해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위한 '보약'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아직도 인삼, 옹담 그리고 녹용이 한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제4차 병원 노릇을 다하고 있는 '3대선약'이란 점을 상기하면 이 방면에 논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속의술을 오늘날에 문제삼는 의의가 이에 그치지지는 않는다. 비록 서구 현대의학이라 할지라도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은 물론 치료법이나 의술마저도 전통문화의 영향내지 민족문화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대 서구 의학도 어느 정도는 '민속의술'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나치게 심각하지만 않다면 '울증(鬱症)'이 영국 의사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영국인 다운 진지성의 징후'로 진단될 수도 있는 반면, '조증(躁症)'이라면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바람직스런 정신적 자세로 진단될 가능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속의술 내지 민속의학에 대한 이해는 한 민족에 있어 오늘의 질병관 그리고 그것

에서 비롯한 치유방식 등에 관한 이해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민속의술이 오늘날에 논란되는 의의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니다. 민속의술의 질병관인 치료술은 크게는 우주관 작게는 인생관 그리고 운명 등과 깊이 맺어져 있다. 우주질서 내지 섭리 그리고 자연의 운행 등과 관련된 일정한 실조(失調) 내지 궤적이탈이 곧 질병의 원인이고 증상이라고 생각한 민속의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주위진 민족집단의 우주관, 자연관 그리고 그러한 것과 관계지워진 상황속의 인생관 등을 이해하는 일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2. 질병원인설명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민속의술에서 질병의 원인으로는 1)금기의 파괴 2)영혼의 상실 3)귀신의 침입 4)벌레의 침입 5)투사(投射) 등 다섯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필란드의 민속학자, 로리홍코가 그의 '질병의 투사'(Krankheitsprojekte, Helsinki, 1967)에서 범주화한 것이지만 그의 범인류적 시각에서 이 다섯을 추적,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대체로 이 테두리를 다소간 넘나들면서 그 질병원인설명이 이룩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범주가 민족의 차이없이 논란될 성질의 것은 아닌 만큼, 그 절대적 규범성이 이경되어서는 안된다. 가령, 우리 샤머니즘과 여러모로 비견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시베리아 원주민의 샤머니즘에서 주로 2)와 4)에 의해서 질병의 원인이 설

세계 결핵의 날

명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의 적용이 극히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을 들면 이 방면 한국의 위상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무속신앙에서 나타나는 트란스 내지 이크스타지가 탈령(脫靈, Soul-loss)에 의해서 야기되기 보다는 이른바, 접신(接神)에 의해서 야기되는 사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한 민족 내지 종족의 질병이 크게는 그들의 종교신앙, 작게는 영혼관과 맺어져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에 덧붙여서 '투사 이론'이 한국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1), 3), 4)에 의해서 한국인의 전통적 질병설명이론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1)의 금기의 파괴는 부정(不淨)의 접촉과 부분적으로 짝지워져 있다. 성역이나 성체(聖體)에 대한 부당한 접근, 접촉, 그 모독 등은 1)항목의 적극적인 면이지만 부정과의 접촉 혹은 부정한 짓을 스스로 저지르는 일 등은 그 소극적인 면이다. 이것은 사회제도 현상 등과 맺어진 '질병설명설(疾病說明說)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예컨대 사회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위험한 일이고 사회적 윤리규범의 침탈이 인간으로서 맑지 못한 것이어서 역시 위험한 일이라는 관념과 직접 대비되기 때문이다.

사회윤리적 질서의 파괴가 위험하듯 금기의 파괴는 질병이라는 위기를 몰고 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 민족집단의 사회적 위기, 자연적 위기 그리고 질병은 상동관계(相同關係)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의 보기는 가령, 한명회에 관한 일

화에서 지적될 수 있거니와 이 물질의 침입은 이 보기의 또다른 종류라고 판단되어도 좋을 듯하다. 한국인의 정신, 심리적 복합 혹은 사회문화적 복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질병설명설은 역시 3)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무속신앙이 갖는, 위에서 들어 본 바와 같은 속성때문이다. '귀신이 붙는다.' '살이 오른다.' '귀신이 든다.' '귀신이 오른다.' 등의 낱말과 '병이 든다.' (웃이 오른다), '병이 탄다.' 등의 낱말이 서로 지니고 있는 대비(Parallelism)는 상당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잠귀가 나가듯 병이 나가고 객귀를 물리듯 병도 쫓듯이 병도 쫓아야 하는 점에서도 우려해야 한다.

1), 3), 4)등에 의해서 설명될 한국인의 질병은 크게는 자연의 재앙, 액에서부터 작게는 사회의 재앙과 액과 상동관계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연과 사회가 결리게 될 질병이 그 재앙이라면 혹은 액이라면 한 개인이 당하게 되는 재앙과 액이 다름아닌 질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한국인의 보양(補養) 관념

한국인에게 있어서 병은 '걸리고 듣고 오르고'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필경 '맺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인들은 흔하게 '몸을 푼다.' '몸살이 풀린다'고들 하는데 이는 병이 맺힘이고 영김이거나 아니면 '고'라고 관념되고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것은 원한맺힘 이른바, '원귀'가 붙어서도 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믿음에서도 추정되지만 직접 '살(근육)의 고' 또는 '피의 고(어혈)가

다름아닌 병증으로 관념되고 있는 데서도 유추될 수 있다. 마음의 고가 원한이라면 '몸의 고'내지 '생리의 고'가 곧 병이라고 관념되어 있는 셈이다.

이것은 풀리고 흥하고 하는 것이 곧 '치병'이라고 생각되고 있음에 대해서 시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순조로운 운행, 유통 및 순환이 곧 정상이고 건강이라고 한국인은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뜻에서 건강이 질서라면 병은 무질서 곧 카오스라고 관념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피의 흐름, 기의 흐름 등이 순조로운 상태야말로 한국인의 건강이다.

부적을 타거나 금기를 어기고 또는 귀신이 불거나 이 물질(체)이 침입하거나 해서 기의 흐름이나 피의 흐름이 막힐 곧 맺힘이 생기게 된 상태, 위기상태가 곧 질병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인데 이 비상사태에 대한 자위수단이 곧 한국인의 '보양'관념을 낳게 된다. 침입자와 또는 달라 붙는 힘과 맞싸울 수 있는 자체 방위력으로 '보양'이라는 전략이 취해진 것이라고도 보여진다. '보양' 그리고 '보약'이라는 관념은 지극히 한국적인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둘 만하다.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것, 사회적 윤리관을 지키는 것, 부정을 멀리하고 금기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귀신을 잘 섬기는 것(별신굿 같은 집단적 종교행사에서) 등등이 질병에 대한 외곽방위라면 보양은 내각방위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인의 보양제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은 뉘니뉘니 해도 역시 녹용, 웅담 등 약제로 관념되어 이것들 이외에 뱀, 개구

리, 자라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한국인 특유의 '몸식물분류법'과 '식물약제분류법'이 겹치면서 생기게 된 '식물보양제'도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날에 이르도록 역시 가장 인기있는 보양제는 묘하게도 위에서 든 동물성의 것들이다.

신라의 '토우장식 장경대호(土偶裝飾 長頸大虎)'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고 신라 왕관과 일부 고분이 익히 보여주고 있듯이 이들 동물성보양제는 그야말로 태고적 이래로 복용되어 왔다. 한데 이들은 하나같은 이른바, '달동물'(Lunar animal)이어서 달이 갖추고 있는 '종단' 있는 영생' 내지 '재생'과 맺어져 있다. 달이 재생을 되풀이하고 자연이 봄에 재생을 되풀이하듯 인간 또는 종단있는 영생을 되풀이하고자 하여서 한국인은 이들 보양제를 장복해 온 것이다.

4. 질병과 죽음

질병이 삶의 위기라면 죽음은 삶의 최종적 파국이다. 한 민족의 질병관은 죽음관에 여러모로 재현되는 것인데 이 죽음관이 역으로 인생관 및 질병관 그리고 치병의 원리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인의 죽음은 오랫동안 원한, 공포, 부정(不淨) 등의 관념에 감염되어 있었다. 이들이 서로 복합되면서 한국인 특유의 죽음에 대한 여러가지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한 것이다. 암을 환자에서 직접 선고해도 좋으나 어머니 하는 논란, 뇌사에 얽힌 문제 호스피스 운동의 만족하지 못할 진전 등에 이르기까지 의학분야에서만도 전통적 죽음관념은 아직도 같은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